기방시대 매거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Vol 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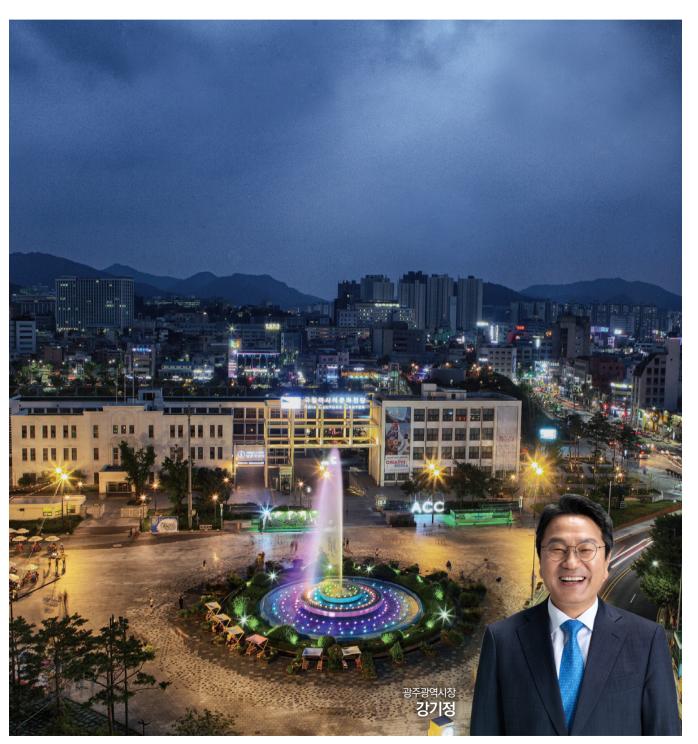


Vol 124

기방시대 매거진

2024. 1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

지방시대 매거진은 협의회 홈페이지(www.gaok.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2024년 12월 10일(제124호)

발 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 소 03186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2층

문 의 02-2170-6092

편 집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홍보미디어부

기방시대 매거진



Vol. 124
2024, 12.



CONTENTS

┌ 시도지사 칼럼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지방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 2024년 역점과제

- ▶ 시민에게 '걷고 싶은 길'을 드립니다. 〈대·자·보 도시〉 광주
- ▶ 광주의 전략적 선택 〈AI·미래차·문화산업〉 도시로
- ▶ 광주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 개막 〈복합쇼핑몰〉

┌ 광주의 주요정보

- ▶ 따뜻한 겨울을 즐기는 특별한 초대-크리스마스 광주 빛축제
- ▶ 사계절의 다양한 매력을 품은 도심속의 쉼터-무등산국립공원
- ▶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주무대-옛 전남도청과 5·18민주광장
- ▶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 ▶ 정월대보름에 만나는 대표 민속축제-광주칠석고싸움놀이 축제

┌ 광주광역시 우수사례

- ▶ 소상공인 지원군 〈광주공공배달〉
- ▶ 전국 최초 지각 괜찮아 장려금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 ▶ 365일 24시간 어린이안심의료체계 구축 〈공공심야어린이병원〉
- ▶ 광주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광주다움 통합돌봄〉

┌ 의회소식

- ▶ 제9대 후반기 광주광역시의회 출범
- ▶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건의
- ▶ 제9대 후반기 「정책네트워크」 출범
- ▶ 지방의회 전국경진대회에서 전국 최다 6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

┌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

┌ 정책포커스

- ▶ 지역혁신기반 대학지원체계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담조직 운영 방향에 관한 고찰
- ▶ 지방시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관광정책 추진 방안



















시도지사 칼럼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지방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시도지사 칼럼

지방분권은 국가경쟁력과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는 〈지방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고도성장을 당연시하며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생존을 고민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지속되는 저성장과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출산율, 그리고 초고령화사회 진입이 코 앞으로 다가왔다.

더욱 걱정스러운 대목은 유례없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다. 지방의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수도권으로만 몰리고(강제된 상경) 있지만 지방정부는 떠나는 청년들을 머무르게 할 수단(권한·재정)이 없다.

이제 권한과 재정의 무게 중심을 과감히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야 한다. 역대 정부마다 지방분권을 외쳐 왔지만 수도권 집중은 더욱 견고해졌고 그 사이 지방분권은 국가발전 전략에서 국가생존 전략이 되었다. 분권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지방분권은 단순한 권한의 덧셈 뺄셈이 아니다. 핵심은 시민이 누려야 할 권리를 특정 지역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나고 자란 지역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고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일자리, 주택, 저출생, 청년정책과 같은 실질적 주민복리 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재정의 권한을 지방정부의 손에 쥐어 주자. 더 이상 국비 확보가 지방정부의 지상 과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권한과 재정은 넘겨주지 않고 부담만 떠넘기는 지금의 구조에서 지속가능과 균형발전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결코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보다 앞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국가들은 이제 지방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기고 지방분권 원리를 〈헌법〉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올 2025년은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다.

우리 지방정부는 지난 30년간 지방자치라는 뿌리를 지역에 단단히 천착해 왔다.

이제 지방화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지켜보자.

지방재정 정상화를 포함한 흔들림 없는 지방분권과 이를 담보할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는 것, 대한민국이 당면한 인구 위기와 강고한 수도권 독점 체제를 깨는 해답이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 목소리가 충분히 녹아 들길 기대한다.



시도기사 칼럼 11

국회-정당-지방정부 간 협업체계 구축 새로운 지방분권 모델을 제시한 〈국회, 광주의 날〉

국회나 중앙정부에서 만든 정책은 결국 지방정부를 통해 실현된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지방자치 실현이라는 본연의 역할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국회와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알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광주가 직접 국회로 달려갔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9월 2일, '광주가 온다. 대한민국이 달라 진다!'라는 슬로건으로 〈국회, 광주의 날〉을 열었다. 국회에서 '지방정부의 날'행사가 열린 것은 전국 최초로 다음날 3일 까지 이틀간 진행되었다.

광주는 이 자리에서 각 정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정당은 '정책실증의 장으로'광주가 필요하고, 광주는 국회의 입법권과 예산권의 도움이 절실한 만큼 협약을 통해 상호 시너지를 내보자는 것이다.

광주의 혁신정책이 대한민국 표준으로 가기 위한 논의의 장도 열었다. 국회의원·전문가·관계부처 등에서 함께 주최 하는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돌봄 통합지원 ▲자동차부품 재제조 순환경제 기술포럼 ▲영호남지역 군공항 이전의 한계와 대책 ▲광주 AI2단계 사업을 통한 미래발전 전략 등 국가적 현안 해결에 필요한 광주시 혁신정책을 논의했다.

또한,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전방위 국회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이 없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팀광주 의원'을 위촉하고,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국회의장 캐스퍼 전기차(EV) 탑승식도 가졌다.

국회 광주관도 운영했는데 광주비엔날레, 김치축제 등 도시 브랜드를 알리고 광주다움 통합돌봄, 공공심야어린이 병원,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등 우수정책을 소개하는 시간이었다.







중앙정부 정책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좋은 정책도 대한민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 내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이런 '광주의 날'이 전국화되어, 국회가 주도하는 '지방정부 정책박람회'로 확대되길 희망한다.

'자랑스러운 노벨상의 도시, 행복한 스포츠 도시' 〈광주의 힘〉입니다.

2024년 광주에는 기분 좋은 일들이 많았다. 한강 작가의 대한민국 최초 노벨 문학상 수상, KIA타이거즈의 한국시리즈 우승(V12), 광주FC의 창단 이후 첫 ACLE 진출, 광주글로벌모터스 캐스터 전기차(인스터)의 64개국 수출 등이 그것이다.

이런 〈광주의 힘〉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서 나온다. 이번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도 경제와 민주주의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화 돼 있는 도시에서 더욱 활성화된다는 표현을 했다. 광주가 민주화의 도시고, 민주주의의 중심도시이기 때문에 경제, 문화, 정치, 여타 여러 분야에서 힘과 활력이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주의 힘〉이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멀리 뻗어나갈 수 있기를

먼저, 한강 작가가 바랐던 '책 읽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시의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광주의 새로운 브랜드인 '노벨상의 도시'로 나아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최근에는 이를 담당할 '인문도시 광주위원회'도 발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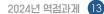
아울러, 광주를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힘을 얻고 가는 도시로 만들고자 한다.

광주의 문화와 먹거리. 스포츠가 한데 버무려지도록 챔피언스 필드-복합쇼핑몰(더현대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잇는 스포테인먼트 등을 구상하고, 내년 9월 광주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러 명실상부 스포츠 도시 광주의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다.











2024년 역점과제

시민에게 '걷고 싶은 길'을 드립니다. 〈대·자·보 도시〉 광주 광주의 전략적 선택〈Al·미래차·문화산업〉 도시로 광주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 개막〈복합쇼핑몰〉



시민에게 '걷고 싶은 길'을 드립니다. 〈대·자·보 도시〉 광주

〈대·자·보〉는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자의 줄임말이다. 광주광역시의 교통정책을 승용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자전거, 보행 중심으로 전환 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는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먼저, 광주시는 〈대·자·보 도시〉를 대표하는 공간으로 광천권역을 택했다. 광천권역은 옛 전방·일신방직부지 개발,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광천주택재개발 등대규모 개발 사업이 집중된 곳이다. 상당량의 교통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전담팀 운영, 전문가 자문 등을통해 지난 9월〈광천권역 대·자·보 특별교통대책〉을마련했다.

대책의 주요 골자는 동서를 연결하는 '광천상무선'과 남북을 연결하는 '버스형트램'을 신설해 승용차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주요 생활권과 주요 기관, 구도심을 연결하는 '도심 급행 버스'와 '상생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다.

'도로 다이어트'도 추진한다. 대상은 2025년 상반기 중 도로포장이 완료되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17km) 구간이다. 교통량 등을 고려해 편측 1차로를 줄이는 대신 보도의 폭을 넓히고 자전거도로를 신설해 보행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형 대중교통 할인정책인 '광주G-패스'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정부 K-패스와 연계한 '광주G -패스'는 시내 버스·마을버스·도시철도 이용요금을 어린이는 무임, 청소년은 반값, 청년은 30%, 일반성인은 20%, 어르신은 50%, 저소득층은 64%까지 할인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대·자·보 도시〉의 성패는 시민공감과 실천에 달려 있다. 광주시는 대·자·보 정책의 비전과 가치에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실증·소통·참여 그리고 연결에 기반한 '시민공감 정책 3+1'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년 역점과제 15

광주의 전략적 선택 <AI·□I래차·문화산업> 도시로

광주는 정치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잘하는 도시로 이름 높지만 산업에 있어서도 늘 전략적 선택을 해온 도시다. 1960년대 산업화 시대에는 자동차산업 (아시아자동차)을, 2000년대 외환위기 시대에는 광산업을, 2018년에는 어느 도시보다 먼저 AI (인공지능) 산업을 선택했다. 그 선택이 오늘날 2개 완성차(기이차·GGM) 공장 보유 도시, 광산업 도시, A 중심도시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차산업은 '100만평 미래차 국가산단'('23. 3월)과 '220만평 규모의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23. 7월)를 잇달아 유치하며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 최근에는 광주글로벌모터스 (GGM)에서 생산하는 캐스퍼 EV(수출명 인스터)가 64개국으로 수출된다는 기쁜 소식도 이어지고 있다. AI산업은 탄탄한 인재양성사다리와 AI데이터센터 등 핵심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과 인재가 몰려들고 있다. 최근 신규 유치 기업이 250개사를 돌파했고 특히 반도체 설계기업(에이직랜드, 에임퓨처, 모아이) 과도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반도체 설계-생산-패키징에 이르는 반도체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갖추게 되었다.

지난 11월에는 빛그린산단(모빌리티특구)과 첨단 3지구(인공지능특구)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되며 광주의 미래산업 육성이 더욱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울러, 광주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광주실감 콘텐츠큐브(GCC), 3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등 '문화의 힘을 가진 도시'다. 문화가 기술을 만나 산업이 되고, 기술은 문화를 만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시대를 맞아 이제 대한민국 〈AI x 문화 중심도시〉로 나아가고자 한다.







광주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 개막 〈복합쇼핑몰〉

광주광역시는 '대한민국 No.1 메타 N-컴플렉스'를 목표로 복합쇼핑몰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쇼핑몰은 단순한 쇼핑몰 건립 사업이 아니다. 대기업이 광주의 가능성을 보고 관광과 유통 문화산업에 재원 투입을 결정한 4조원 대의 투자 유치사업이다.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유치를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도약의 지렛대로 활용하 겠다는 구상이다.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에 건립하는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 기존 신세계 백화점을 확장하고 광천 터미널을 복합화하는 '광주신세계 아트앤컬처 파크', 체류형 관광단지인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 유치 사업 모두 순항 중이다.

'더현대 광주', '신세계 광주 아트앤컬처파크', '어등산 그랜드 스타필드'는 내년에 삽을 뜨고 각각 '27년, '28년, '30년에 문을 열게 된다.

광주시는 차질없는 복합쇼핑몰 등의 개점을 위해 '공정·투명·신속'원칙에 따라 통합행정을 지원 하고, 소상공인과의 실질적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복합쇼핑몰과 연계한 종합 교통 대책을 수립해 방문객의 이동 편의도 높여 나갈 방침이다.



광주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 준비









광주의 주요정보

따뜻한 겨울을 즐기는 특별한 초대-크리스마스 광주 빛축제 사계절의 다양한 매력을 품은 도심속의 쉼터-무등산국립공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주무대-옛 전남도청과 5·18민주광장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정월대보름에 만나는 대표 민속축제-광주칠석고싸움놀이 축제



따뜻한 겨울을 즐기는 특별한 초대-크리스마스 광주 빛축제

광주의 역사와 기독교 선교 문화가 숨 쉬는 양림동 일대에서는 12월 한 달 동안 '크리스마스 광주 빛축제'가 펼쳐진다. '빛과 소망'을 콘셉트로 사직공원 빛의 숲,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빛의 거리, 빛고을성탄문화축제 등을 아우르는 광주 빛축제는 한겨울에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온기를 전할 예정이다.

수많은 소망이 하늘의 별이 돼 사직공원에 은하수로 쏟아지는 830m의 '사직공원 빛의 숲'은 방문객들을 빛과 미디어아트의 세계로 인도한다. 그리고 광주에 최초로 기독교가 전파된 선교문화의 중심 양림동에는 '양림&크리스마스 문화축제'가 열린다. 양림오거리의 트리점화식을 시작으로 축제 기간 양림동 일원에서는 촛불퍼레이드를 비롯해 음악콘서트, 근대문화 유적 순례 등 풍성한 이벤트를 만날 수 있다. 또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금남로, 빛의 읍성, 웨딩의 거리 일원에 걸쳐 약 1.6㎞의 '빛의 거리'도 조성된다. 아울러, 5·18민주광장에서는 '빛고을성탄문화축제'가 열려 대형 트리와 아름다운 빛 조형물로 만들어진 포토존에서 인생 사진을 찍고 캐럴을 들으면서 뜻깊은 연말을 보낼 수 있다.



사계절의 다양한 매력을 품은 도심속의 쉼터-무등산국립공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담양과 화순에 걸쳐 있는 호남 정맥의 중심인 무등산은 2013년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2014년에 국가지질공원으로 등재됐고, 201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재인증에 성공하며 지질학적중요성과 생태·고고학·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최고봉인 천왕봉(1,187미터) 남서쪽에 위치하는 주상절리지형의 서석대와 입석대가 대표 지질명소로 꼽히는데, 돌기둥 200여 개가 마치 병풍처럼 300~400미터 길이로 펼쳐져 있다.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된 주상절리 외에도 기암괴석이 산 곳곳에 분포해 있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룬다.



광주문화재자료 제1호 천년고찰 증심사, 조선시대 가사 문학의 정취가 담긴 가사문학관, 문화 · 예술의 혼이 서린 운림동 미술관, 원효계곡의 산세 속에 위치한 원효사 등 무등산 국립공원은 광주의 모든 것을 품고, 도심에 자리 잡고 있어 계절마다 수많은 사람이 찾는다. 올해는 11월부터 12월까지 산과 강을 연결하는 챌린지 프로그램인 '광주 더블 트레일 챌린지'를 운영한다. 챌린지 참가자들은 영산강을 도보 또는 자전거로 완주하며 무등산의 빼어난 가을과 겨울 경관은 물론

자연생태를 경험하고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주무대-옛 전남도청과 5·18민주광장

금남로는 일제 강점기 3월 만세운동의 집결지였고 군부독재 치하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중심지였다. 금남로의 중심에 있는 '옛 전남도청'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맞선 시민군의 최후 항쟁지이고 옛 도청 앞 '5·18민주광장' 역시 시민들이 항쟁 의지를 불태웠던 장소로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작품 속 배경이 된 상무관, 분수대 등이 위치한 곳 이다. 분수대를 중심으로 성회를 개최하고 집회가 열렸으며, 5·18민주항쟁 이후에도 여러 시국 집회를 이끌면서 광주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공간으로 꼽힌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의 총탄 흔적 245개를 간직한 '전일빌딩 245'는 금남로 일원에서 거의 유일하게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건축물로, 2020년 리모델링을 거쳐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5·18민주화운동의 인권과 평화의 의미를 예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하여 2015년 11월 개관한 ACC는이시아 문화에 대한 교류·교육·연구 등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아시아 각국과함께 동반성장 하고자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이다. 세계적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아시아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자원 수집·연구, 콘텐츠 제작,전시, 공연 등이한 곳에서 이루어진다. 5·18민주화운동의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 부지에 들어서 있는데, 빛과 숲을주제로 지상을 공원화한 건축디자인이 특징 이다. 천장을활용해 자연광을 최대한 끌어들이는 구조는 '빛의 숲'이라는건축 콘셉트를 드러낸다. ACC는 민주평화교류원,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예술극장, 어린이문화원의 5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년 내내 다양하고 역동적인 프로그램(전시, 공연, 교육, 축제, 기타 행사)들이 펼쳐진다.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문화광장, 하늘마당, 열린마당 등 야외공간과 '빛의 숲'을 주제로 한 지상정원은 도심 속 휴식 공간으로도 제격이다. 사전에 웹사이트에서 가이드 무료 투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약 1시간 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요 공간을 효율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정월대보름에 만나는 대표 민속축제-광주칠석고싸움놀이 축제

광주칠석고싸움놀이 축제는 매년 정월대보름(음력 1월 15일)을 전후하여 만날 수 있는 축제이다. 국가 무형문화재 제33호로 지정된 이 축제는 고싸움놀이의 문화적 원형을 보존하여 전통의 정신과 가치를 전승 확산시키는 지역을 대표하는 민속축제다. 예로부터 음력 정월보름이 되면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불러들여 마을이 편안하기를 비는 세시 풍속으로 당산제를 지내고 고싸움놀이를 벌였다. 남자를 상징하는 동부와 여자를 상징하는 서부 두 패로 갈라져서 고싸움을 벌이는데 여자를 상징하는 서부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다. 축제기간 중



에는 쥐불놀이, 당산제, 줄다리기, 연날리기, 널뛰기, 그네뛰기 등 각종 세시민속놀이가 함께 펼쳐져 어르신에게는 따뜻한 추억과 유년기의 향수를, 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와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과 재미를 선사한다.







광주광역시 우수사례

소상공인 지원군 〈광주공공배달〉 전국 최초 지각 괜찮아 장려금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365일 24시간 어린이안심의료체계 구축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광주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광주다움 통합돌봄〉



소상공인 지원군 〈광주공공배달〉

광주광역시는 배달의민족 등 민간배달 플랫폼의 높은 중개수수료에 맞서 소상공인 지키기에 앞장서고 있다.

전국 공공배달앱 시장점유율이 3% 내·외인 반면, 광주지역은 공공배달앱 시장점유율이 17.34%에 이른다. 2%의 낮은 수수료와 지역화폐 연계를 장점으로 가맹점수는 13,838개소로 시행 초기 (2021년) 대비 11배 증가하였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복수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울러, 소비자 유인책 마련, 시중은행 등 지역사회와 상생협력 체계 구축, 유명 인플루언서 홍보맨 위촉 등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강기정 시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 위원장을 만나 중개수수료 상한 등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입법과 공공배달앱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같은 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중앙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적극 행동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공공배달앱 모범사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문화경제부 시장이 참고인으로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문화경제부 시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정부의 국비 지원과 국회 차원의 수수료 상한 등 제도 개선 입법을 건의했다.

광주 지역사회도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지난 7월,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 상인단체를 중심으로 '배달의 민족' 독립 선언을 진행하고, 8월부터는 배달의 민족 탈퇴 1,000인 서명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광주에서 시작된 외침이 지역을 넘어 전국적 반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THE THE REAL PROPERTY OF THE P



전국 최초 지각 괜찮아 장려금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광주광역시가 전국 최초로(2022년) 시행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초등학생 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1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5시로 앞당길 수 있다.

근로시간 1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는 광주시가 장려금으로 사업장에 지원한다.

일하는 학부모에게 자녀의 초등입학기는 '경력단절의 마지막 절벽'으로 불릴 만큼 어려운 시기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일하는 학부모에게 '마법의 1시간'을 선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올해 지원 대상과 지원 건수도 대폭 확대했다. 기존 1학년 학부모만 대상으로 하던 것을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였고, 지원건수도 150건에서 300건으로 2배 늘렸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도 뜨겁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효과적인 저출생 대책으로 광주시의 (10시 출근제)를 평가하며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부처와 전국 사업화를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 모든 초등학부모가 〈10시 출근제〉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365일 24시간 어린이안심의료체계 구축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광주형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늦은 밤 아이가 아파 진료를 받기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서는 '소아과 오픈런'을 해소하고자 광주기독병원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연중무휴 자정까지로 매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진료한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이후 1년간 20,969명의 아이들이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이용했고, 평일 일 평균 29명, 휴일 일 평균 119명의 어린이가 전문진료를 받았다. 응급실보다 저렴한 진료비용으로 시민 본인 부담 의료비 약 16~19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광주시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소아청소년 환자 의료 접근성을 보완하고 소아 경증환자 분산하기 위해 지난 5월 광산구 소재 광주센트럴병원을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추가로 지정하였다. 운영 약 5개월 간 14,498명이 내원하였고, 평일 평균 37명, 휴일 평균 206명의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은 맞벌이 부부의 부담과 불편을 해소 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막는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지속적 저출산 위기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소아의료체계의 획기적 개선 모범사례가 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정책은 전국 지자체 벤치마킹으로 이어지고 있고,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하는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훈장)'을 수상하는 등 대한민국 표준을 만들어가는 광주의 대표 우수정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광주 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할 때 〈광주다움 통합돌봄〉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돌봄을 개인이나 가족이 아닌 '사회의 책무'라고 천명한다. 우선 특정 대상이 아닌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가족, 이웃 누구나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단일창구 '돌봄콜(1660-2642)'을 신설했다. 정보에서 소외될 우려가 있는 초고령 노인이나 은둔·고립 1인 가구 시민은 신청하지 않아도 의무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지 먼저 살핀다.

실행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에서는 시-자치구 조직을 개편해 '전담부서'를 설치(담당인력 44명)하고, 96개 동 336명의 케어 매니저와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59곳(840명)을 선정했다. 행정과 민간의 원활한 협업체계를 위해 모든 절차를 전산화한 '정보시스템'도 지난해 7월 개통했다.

통합돌봄 이용자는 지난 1년 7개월간 1만 7,000여 명에 이른다. 사회적 관계망을 되살려 자살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돌봐 줄 사람이 없어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배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광역 7개. 기초 26개)와 정부기구(국민경제자문회의 등 6개), 국회 등의 방문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제6회 광저우 국제도시혁신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지난 11월에는 행정 안전부 주관 '2024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광주시의 통합돌봄〉을 모델로 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도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의 전국적 확산을 기대해 본다.











의회소식

제9대 후반기 광주광역시의회 출범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건의
제9대 후반기 「정책네트워크」 출범
지방의회 전국경진대회에서 전국 최다 6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



제9대 후반기 광주광역시의회 출범



광주광역시의회는 7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원구성을 완료하며 제9대 후반기 의회를 출범했다.

의장단에는 최초 여성의장에 당선된 신수정(더불어민주당, 북구3) 의장을 비롯한 1부의장에 서용규(더불어민주당, 비례), 2부의장에 채은지 의원이 선출됐다. 상임위원장은 운영위원장 정다은(더불어민주당, 북구2), 행정자치위원장 안평환(더불어민주당, 북구1), 환경복지위원장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 산업건설 위원장 박필순(더불어민주당, 광산3), 교육문화 위원장 명진(더불어 민주당, 서구2)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신수정 의장은 "전체 의원들과 소통하고 협치 하여 의원들이 신나는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건의





광주광역시의회는 9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건의서 전달에는 광주시의회 신수정 의장, 서용규·채은지 부의장, 정다은 운영위원장 등 16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신수정 의장은 "지방자치 출범 34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러 있다"며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의 예산편성권 확대·강화, 사무기구 조직권·인사권의 독립,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의원 1인당 1명 확대 등 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제안했다.

제9대 후반기 「정책네트워크」 출범

광주광역시의회는 9월 4일, '제9대 광역시의회후반기 정책네트워크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에는 신수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학계·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추천된 30명의 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이 함께했다.

위촉된 위원들은 제9대 광주시의회의 임기가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의회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문화 등 5개 분과에서 주요 정책 의제 개발과 연구·자문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후반기 정책네트워크 위원들은 사회 전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시민의 삶 자체인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의제 발굴에 방점을 두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연구·자문기구인 「광주광역시의회 정책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 전국 최초, 지방의회 주요 시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기구로 출범·운영 중에 있으며, 각종 정책 연구·자문 및 조례 제·개정 제안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방의회 전국경진대회에서 전국 최다 6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지난 2019년부터 6년째 개최되어 온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최다인 6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광주광역시의회의 "전국최초 365일 24시 공공심야어린이 병원 운영"사례가 본선에 진출하였고,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미란 시의원이 직접 사례발표를 맡아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받기 어려운 지방의 열악한 소아청소년 진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발의되어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개소로까지 이어졌다. 지역에 꼭 필요한 새로운 형태의 아동 의료서비스를 설계하고 시행했다는 점에서 경진대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를 근거로 광주시가 지난 '23년 9월부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운영한 이후 지난 10월까지 2만 5천 명이 진료를 받았다. 광주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지역의 아동과 부모로부터 호평은 물론 전국의 여러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는 광주에서 시작된 이 제도를 국가차원의 아동복지 제도로 발전시켜 전국에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

㈜**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편** 김도균(지방시대 대학생 서포터즈 19기)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라는 기업의 슬로건을 모토로 자동차, 인프라, 로봇 및 산업안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라이다를 연구, 개발하는 ㈜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님을 만나보았다.

㈜에스오에스랩 간단한 기업 소개



저희는 에스오에스랩이라고 스마트 옵티컬 센서스 랩이라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라이다센서를 활용해서 세상을 더 스마트하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라이다센서를 가지고 로봇, 드론 그리고 이런 인프라에 들어가는 다양한 곳에서 라이다와 관련된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다와 라이다 산업에 대한 소개

라이다와 가장 유사하고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레이더이다.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하는 것이고, 라이다는 빛으로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거나 치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레이더는 전파를 이용하여 멀리 있는 것의 형태를 분석하지만, 전파가 사방으로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것인지 보기에는 해상도가 깨진다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레이저 포인터를 생각해보시면 레이저(빛)는 직선으로 뻗는다. 라이다는 레이더와 비슷하지만 빛을 매개로 전방의 장애물을 감지하고, 치수를 측정하기 때문에 레이더보다 더 촘촘하게 볼 수 있고요. 또 최근에 라이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자율주행, 특히 테슬라 때문입니다.

자율주행에서 카메라를 사용하면 발생하는 착시나 원근감 등에 대한 문제를 라이다는 측정을 통해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라이다는 비싸고 예쁘지 않아요, 정말 좋은 라이다가 있었는데요 제 머리가 작지 않거든요? 제 머리보다 커요. 그런데 그걸 차의 위에 달아야 해요, 멋이 없죠 그래서 그걸 램프에 들어갈 정도로 작고 예쁘게 또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저희가 갖고 있다. 이게 저희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주차장의 주차관제 솔루션이나 하이패스 등 도시 인프라 구축, 방위산업 등에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 미래가치가 높은 산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술 중 왜 라이다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되게 신박한 질문이네요. 저희가 창업하고 1년 넘게 아이템을 못 정했어요. 1년 동안 강아지 키우는 유튜버도 하고, 코딩교육 등 많은걸 해봤어요. 그러다 퓨처플레이라고 하는 액셀러레이터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스타트업은 스케일업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망하거나 성장하거나 그런데 최소 2배, 3배씩 성장하려면 필요한 게 시장이거든요. 급성장하는 시장이 있을 때 우리가 중간만 가도 덩달아 클 수 있다. 파도타기와 같죠, 우리가 파도를 엄청 잘타요 그런데 파도가 10m 치면 아무리 잘해도 10m 인거잖아요? 그런데 100m 짜리 파도가 치면 절반만 해도 50m가 가는 거예요. 그때 자율주행 시장에 카메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을 하는 모빌아이라는 회사가 인텔에 17조 정도에 인수가 됐고 제2의 모빌아이가 어디서 나올까?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성장하는 시장이 어딜까? 생각하다 라이다센서를 생각했죠. 그리고 그때 몇백억 단위로 투자받는 회사가 글로벌로 10개가 넘게 생겼어요 그러면 아 이시장은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할 수 있어?

우리는 2002년부터 라이다를 연구한 연구실, 창업자 4명 중에 2명은 라이다를 전공한 박사였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한국에서는 최고겠구나해서 라이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시장에서 반응이 바로바로 왔고 이렇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신 이유는?

일단 제가 광주 외곽 시골에서 태어나 고등학교까지 광주에서 나오고 포항 한동대로 대학을 갔다 대학원을 광주과학기술원 (GIST)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과학기술원 안에 처음 본사를 만들었고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광주 토종회사라 보면 되십니다. 광주는 이제 완성차 공장이 2개 있는 유일한 도시인데요 최근 AV산업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광산업이 유명한데요, 이 세가지의 교집합에 저희 라이다센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한 라이더 센서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자동차에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너지도 있다 봅니다.

스타트업 하기에 광주는?

광주, 지방은 스타트업을 하기에 어떤 측면에서는 좋고 어떤 측면에서는 열악한데요 우선 지역 내에서 지원되는 사업이나 예산이 있는데 경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업의 수가 적어유리한 것 같다. 저희도 지원 안받은게 없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스타트업 관련된 기관들에서 다양한지원을 받았죠. 구체적으로 자금지원, IR, 투자지원, 네트워킹과 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 받았습니다. 기술보증기금, 광주테크노파크 예비창업자프로그램 지원 등을 받았고, 광주창조 경제혁신센터에서 처음 IR을 했었고요 회사가 상장하려면기술검증, 재무검증등의 과정이 필수적이고 큰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 등을 광주G유니콘사업으로



지원받았고, 발명진흥원 등 창업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는 전부 다 물심양면으로 광주시와 유관기관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측면에서는 쉽지 않은데 아무래도 VC 등이 삼성동, 여의도 등에 있다보니 저희가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IR 자료를 보면 세계 유망 라이다 업체들이 파산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들과 에스오에스랩 간의 차이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후발주자였다는 점이고요. 고정비가 적게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등에서 스타트업을 하는것과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는 건 아무래도 한국이 유지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죠, 중국은 예외로 치고요 가장 최신 기술을 갖고 가장 늦게 시작했는데 유지비도 적게 든다. 이 세가지의 교집합만 가지고도 가장 오래 버티겠죠. 이 시장은 아직 만개하지 않은 시장이라 마지막에 시장이 개화될 때 살아있는 회사가 먹는 시장이에요. 그러러면 지속적으로 투자받거나 자율주행차 시장이 열리기 전까지 먹을거리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맞물려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는 가장 최적화된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 범용성 좋은 기술을 활용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이 시장은 결국 퍼스트무버, 패스트 팔로워도 아니고 있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지만 라스트 스탠더, 마지막에 서 있는 회사가 승리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후 비전과 목표가 있다면?



우선, 너무나 감사하게도 최근 코스닥 상장까지 잘 마쳤는데 저희가 '기술특례상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게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기술특례상장 한 만큼 이 기술로 돈 버는 회사가 되고싶고요 중기적으로는 글로벌 톱3 안에 들어가는 라이다 회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기술이 이정도 역량이 있다는걸 알리고 싶은 마음 이고요 장기적으로는 라이다가 카메라의 미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카메라는 단순 RGB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다음세대 카메라는 RGB는 물론 거리도 찍고 어두워도 찍을수 있는 것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3차원 공간을 그대로 캡쳐하고 스트리밍 할 수 있는 3D 비전센서 이게 라이다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광주광역시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 하고싶은 말인데 각 지역에는 지역에 특화된 사업이 있고 지역에서 육성하려하는 사업의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에 맞게 우리가 전략을 짜고 그 안에서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가 수도권에서 시작하는거 보다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특정 지역에서 할래 보다는 본인이 생각하고자하는 산업의 방향과 분위기에 맞게 특화된 지역을 타겟팅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주는 자동차, 인공지능, 광산업 최근 반도체 관련된 부분까지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광주가 좋은 전략적 본거지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시대 매거진' 구독자들께 한 마디

지방시대가 활성화 되기 위한 방향성은 여기서 잘되면 서울로 가서 돈 벌 수 있어가 아니라 여기서 잘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먹힐 수 있어 이렇게 방향성을 잡으면 너무 좋겠어요 부산에서 잘 됐더니 서울역에서도 많이 팔려 이게 아니라 부산에서 잘 됐더니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여기서 잘 돼, 광주역에서 잘 됐더니 샌프란시스코에서 잘 돼 이런 케이스들을 더 유도하는 게 좀더 세계적인 큰 시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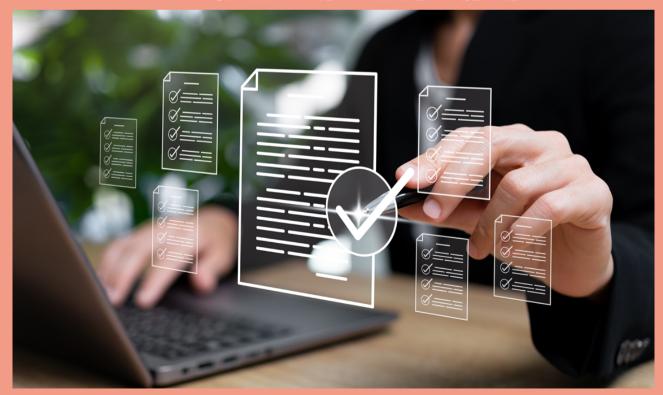




정책포커스

지역혁신기반 대학지원체계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담조직 운영 방향에 관한 고찰 지방시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관광정책 추진 방안

※ 지방시대 매거진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기고 내용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의견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세영 경북대 RISE연구센터 전임연구원

지역혁신기반 대학지원체계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담조직 운영 방향에 관한 고찰

지역이 직면하는 각종 문제들을 심층적이고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 현장밀착형 대안 제시와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 창출의 공간인 지역대학의 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거버넌스 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혁신기반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는 시·도의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모색하는 체계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권한 일부를 시·도에 위임하여. 지역혁신에 있어 대학이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라이즈 사업을 2023년에 발표하였고 202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라이즈체제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대학 간 거버넌스 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본고는 2025년 라이즈사업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측면의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라이즈체계의 지방정부 내 거버넌스 측면에서 라이즈 시범사업의 의의

2023년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지자체의 시범운영 의지와 대학지원 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7개 지역(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을 선정하였다. 2024년에 7개 지역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지자체 내에 대학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사업관리, 선정·평가 업무에 관한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하도록 했다. 대학지원 정책분야는 기존에 지자체의 주요 업무 영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던 대학지원 관련 업무를 종합하여 사업 및 예산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운영, 주요 의사결정조직 운영 등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지원 대상 대학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평가해야 하는 대학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간조직으로서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의 설치를 라이즈사업 시행 초기부터 고려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전담부서 및 전담기관 모델을 마련하고자 했다.

각 시 · 도의 라이즈사업 전담부서 설치 현황 분석과 제언

각 시·도는 라이즈사업을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책임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각 대학재정지원을 위한 기본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수립하고, 이 외에 교육계·산업계 구성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라이즈사업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구성·운영할 책임이 있다. 2024년 10월 기준 각 시·도별로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공무원의 담당업무의 내용으로 RISE 관련 계획수립, 지역 라이즈센터 운영 관리, 성과관리 등으로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대학 지원 혹은 라이즈사업을 위한 전담부서의 성격을 강조하다 보니 라이즈 사업에 한정된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지역혁신 이라는 큰 틀에서 라이즈 사업이 강조하고 있는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발전계획과의 연계 측면에서 부서의 임무와목표를 설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표1] 각 시·도의 라이즈 전담부서 설치 현황

	[표기] 즉 시 조크 디에브 현급구시 글시 한당										
구 분	지자체	조사시점									
		2024. 1월	2024. 7월	2024, 10월							
		전담부서	전담부서	전담부서							
시 범 지 역	경상남도	교육청년국 교육인재과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교육협력과	국 대학정책과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교육협력정책관	고육협력정책관								
	부산광역시	청년산학국 지산학협력과									
	전라남도	자치행정국 희망인재육성과	인재육성교육국 대학정책과								
	전라북도	교육소통협력국 교육협력추진과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추진단								
	충청북도	과학인재국 RISE추진과	과학인재국 미래인재육성과								
비시범지역	강원도	기획조정실	교육법무과	기획조정실 인재육성과							
	경기도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H 디지털혁신과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청년정책관	교육청년국 대학인재정책과								
	대전광역시	전략사업추진실	대학혁신지원과	교육정책전략국 대학정책과							
	서울특별시	경제실 경제정책과	경제실 대학협력과								
	세종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울산광역시	미래전략본부 대학청년지원단	미래전략국 대학청년과								
	인천광역시	기획조정실 교육협력담당관									
	제주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혁신산업국 미래성장과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기획조정실 고등교육정책담당관								

(출처)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저자 작성

각 지역의 라이즈사업 전담기관 및 전담조직 설치 현황 분석과 제언

지역라이즈센터는 라이즈사업을 실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대학 선정 과정 관리, 지원 대학 등에 대한 사업 집행 및 성과 관리 등에 대한 역량을 갖출 것이 요청된다. 각 시·도별 지역라이즈센터는 2024년 10월 기준 테크노파크에 설치한 것이 가장 많았고, 지역 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등에 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테크노파크의 경우 기술사업화 등의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대학 지원·연계·협력 사업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야할 기관이 일부 있으며, 지방연구원의 경우 산업·보건복지·지역개발 정책 등에 있어 지자체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하면서 정책적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시해왔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규모 사업 관리에 관한 업무 경험을 축적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시범사업 수행 기간 중 전담기관 지정이 취소·변경되었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각 기관의 기획역량(계획수립, 계획추진)과 사업관리역량(예산집행, 평가 등)이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기관을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상 지역라이즈센터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필요 인력, 예산, 사업관리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 내 부설기관의 형태로 운영하도록 하는 기관이 있다. 이와관련하여 향후 지역라이즈센터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치법규 등을 통례 관련 근거를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표2] 각 시·도별 지역RISE센터 운영 근거 및 전담조직 설치 관련 규정(2024, 9월 기준)

	전담기관	전담조직명	지정	전담기관 근거법령		#(8)(2024, 9월 기준) 전담조직 설치 등에 관한 규정 검토		
구분						조례	정관	
시범	부산산업과학 혁신원	부산 라이즈센터TF	'23.5	지 방	_	〈부산광역시과학기술진흥조례〉 해당 조문 없음	부설기관 설치 근거 있음	
_	강원인재육성 평생교육진흥원	강원RISE센터	'23.4	출 자 출 연 법	평 쟁 교 육	〈강원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_	
시범	경상남도인재 평생교육진흥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체계센터	'23.7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조례〉 임원과 운영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_	
시범	전남인재 평생교육진흥원	전라남도RISE 추진단	'23,7	_	법	〈재단법인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조직·정원·활동 필요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_	
시범	경북연구원	경북RISE사업 추진단	'23.7			〈경북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연구원 운영 필요 사항은 조례·정관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설기관 설치 근거 있음	
시범	대구정책연구원	대구RISE센터	'23,7	지방연		〈대구정책연구원설립및운영조례〉연구원 운영 필요 사항은 조례 및 정관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정원, 보수, 기금관리규정 제정이나 개정·폐지는 미리 시장의 승인 받아야 한다.	부설기관 설치 근거 있음 (이사회 의결 필요)	
시범	서울연구원	도시사회 연구실	'23.9	구 원		〈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 해당 조문 없음	_	
_	충남연구원	충남 라이즈센터	'23.7	법		〈충남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당 조문 없음	_	
_	충북연구원	충북지역대학 혁신지원센터	'23.7			〈충북연구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도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 정책연구·조사 등 지원위해 분원 설치 근거 있음(도시자 사전 승인 필요)	_	
시범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지역혁신 대학지원센터	'24.5			〈세종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 자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부설기관 설치 근거 있음(이사회의결 필요)	_	
_	울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 추진본부	'23.12			〈울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부설기관 설치 근거 있음(이사회의결 필요)	_	
_	인천테크노파크	전략정책팀	'23.10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설기관 설치 근거 있음(이사회의결 필요)		
시범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 협력단	'23.5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해당 조문 없음	부설기관 설치 근거 있음 (이사회 의결 필요)	
-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지역혁신 플랫폼	'23,5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조례〉 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_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광역시 대학교육 혁신센터	'23,5			_		
_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지역혁신 대학지원센터	'23.7			_		
_	경기도경제과학 진흥원	RISE추진TF	'24,1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도지사 승인 얻어 센터 등 설치 가능	부설기관 설치 근거 있음	

(출처) 각 행정기관 홈페이지 및 교육부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지방시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관광정책 추진 방안

인구감소시대의 도래

김윤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인구감소시대는 이미 도래하였다.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지역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를 전망하고 대응하고 있다. 지방소멸이란 용어는 2014년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 전 총무상이 발간한 일명 '마스다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으로, 일본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하고, 지역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지방도시의 소멸 위험성을 설명하는 용어이다(마스다 히로야,

2015). 일본에서는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감소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의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지역의 존폐의 문제로 직결되어 일본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박승현 2017).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2021년 10월 19일,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의 각종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의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대응 기반을 마련하였다. 인구감소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역관광 정책은 지역의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새로운 가치와 지향점을 설정하고, 장소와 공간 중심 정책에서 인구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환경변화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관광시스템의 진단, 직접적인 관광형 생활인구의 확대, 다양한 영역과의 연계협력 모색 등을 통하여 지역관광 정책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지역관광 정책 관점에서 주안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인구감소지역 관광 정책은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지역관광 정책과는 목표, 방향, 재원, 추진체계 등에서 다르다는 점이다. 인구감소지역 관광정책은 생활인구의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책 추진방안을 제안 하였다.

지역 간 연계협력형 관광활성화

첫 번째, 정책방안은 지역 간 연계협력형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통계청이 공표한 장래인구추이를 기초로 2040년 장래인구 분포 분석 결과, 인구감소로 예상되는 지역은 전체 81.03%,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은 18.96%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20). 이는 향후 지역 간 인구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인구감소는 보편화될 것을 전망하는 결과이다. 지방시대를 맞아 지방은 정주인구, 유동인구는 감소하고, 지역의 활력을 저하되며, 지역의 주요 생활기반 인프라 활용이 어려워지는 과소화 문제와 직결되어 지역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요한 부분이 지역 간 연계협력이다. 지역 간 연계협력은 지역에서의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자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소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조되고 있다. 정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국가 주도의 성장과 개발 중심에서 탈피하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유연한 스마트 국토를 구축하는 것을 새로운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대한민국정부, 2019).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광역권 관광개발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0).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 특화해야 한다.

지역 간 연계협력은 자원, 콘텐츠 조직, 시스템을 넘어 관광시장의 연계까지도 포함된다. 즉, 권역 내 지역 연계협력을 통해

역내 관광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연계협력 사업 추진으로 관광객을 강원도로 유치할 수도 있지만, 강원도 내 각 지역의 정주인구를 관광시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을 의미하고, 관광산업 육성은 일종의 생존전략으로 인식된다. 생산, 유통, 소비 등 관광산업의 가치사슬 전반에서 연계협력이 이뤄져야 한다. 관광은 거리의 효용성이 큰 산업이다. 관광시장과 관광목적지가 가까울수록 관광활동이 증가한다. 어떻게 매력적으로 유인하느냐에 달렸고, 근거리 관광트렌드의 확산, 지역 연계협력 관광상품 개발, 지속가능한 관광 확대, 광역중심의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종합하면, 지역 간 연계협력 관광활성화는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 생산성 및 활력 저하, 관광 역량 및 관광서비스 전달체계의 약화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단순히 관광자원과 공급망의 연계협력으로 생산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측면에서도 연계협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관광발전을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지역관광 추진 역량 강화

두 번째 정책방안은 지역관광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인구감소시대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하고,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는 전략이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절대적으로 감소하는 정주인구를 대신하여 활력 제고의 주체로서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시대는 우리 지역의 인구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의 인구 감소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인구 감소는 당분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불변하는 상수로 규정해야 한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관광에서도 불가피한 변화를 초래한다. 추진주체의 역량 문제, 고령화되는 지역주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인의식 결여 등은 중요한 변화요인이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응하기 위하여 지역관광 추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관광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한 관광 공급 가치사슬 체계 전반에서 역량강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생산, 유통, 소비전 단계에서 인재, 조직, 기술, 예산, 제도 등 촘촘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은 지역 관광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장소와 공간 중심의 일반적인 지역관광 정책과 구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관광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전효재, 김윤영 외, 2024)이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감소시대는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자원이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문제에 놓여있다. 지역민이 주도하는 관광은 문화적 감수성을 현장감 있게 제공하고,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관광객의 관광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만, 관광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체와 인구감소지역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앞에서 기술한 이유로 역량의 한계를 보여준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관광 인재를 유입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 관광 시스템을 견인할 핵심 주체(keystone player)로 육성하여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관광을 활용한 관계인구 확대

세 번째 정책방안은 관광을 활용하여 지역의 관계인구를 확대하는 것이다. 일본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 활력 제고와 관계인구 유치를 위하여 지역 관광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군마현 북부의 가와바 마을은 농업과 관광을 융합하여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쉽게 표현하면 농촌관광을 컨셉으로 한다는 것이다. 컨셉은 특별할 것 없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가와바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마을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현지인이 생산한 농특산물이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고집스럽게 한 지역의 도시민들에게 전달하며 차별화에 성공하였다. 보편적이지만 친근한 컨셉, 마을 주민이 직접 생산한 특산물이라는 자부심, 도시민과의 관계 맺기,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 끊임없이 지속적인 추진방식 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가시적인 성과는 아주 느리게 나타나지만, 한 순간에 휘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역에 남아 있다. 지역민 스스로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한 교과서적인 성과라고 평가받고 있다.

가와바 마을의 인구감소지역 탈피 전략은 바로 관계인구 유치 전략이다. 전략은 단순하지만 전략의 깊이는 40년을 넘기고 역사에 남았다. 가와바 마을은 1981년 도쿄에서도 부촌으로 알려진 세타가야구와 '제2의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프로젝트는 세타가야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의 농촌 체험 이동 교실로써, 세타가야구 내 61개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5학년이 되면 학교 수업의 정규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2박 3일 동안의 가와바 마을 농촌 체험 활동을 하게 되는데, 농촌 체험 이동 교실로 명명된 이 체험활동은 세타가야구 5학년 학생 6,000여 명이 대부분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였다(한국농어촌공사, 2024). 40년 전에 가와바 마을을 찾았던 초등학생들은 지금도 가족들과 마을을 찾고 있고, 일부는 현재 제2의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일원이 되었다. 관계인구 유치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정주인구를 확대하고자 하는 인구감소지역 탈피 전략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제2의 고향 만들기는 가와바에 새로운 관광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지역기반 산업이 활력을 되찾았으며, 일자리가 늘고, 청년들이 마을로 돌아오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관계인구, 청년들이 늘면서 출산율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농촌관광을 컨셉으로 하는 도농교류라는 평범한 목표를 내세운 가와바 마을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의 문제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누가 참여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와 같이 관광으로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2022년 일본 관광청에서 추진하는 제2의 고향만들기 사업을 기점으로 확대되었다. 가와바 마을의 '제2의 고향 만들기'는 일본 관광청에서 추진하는 관계인구 유치 확대사업인 '제2의 고향 만들기' 프로젝트를 40년 이상 앞서 추진했다.

관계인구 유치는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숙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진정한 위기는 인구가 감소하는 양적인 문제보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주체의 역량 부족과 위기의식 부재 및 주체성의 결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관점으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문제를 바라보고,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관광을 전망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과소화 되는 지역의 과제를 고민하는 관계인구 확보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가와바 마을에서와 같이 관계인구가 훗날, 지역에 정착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관광을 이끌고 주도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대한민국정부(2019),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24).

마스다 히로이(2015), 「지방소멸」, 서울: ㈜미래엔.

문화체육관광부(2020), 광역관광개발 개선방안 연구.

박승현(2017), 「지방소멸」과 '지방창생': '재후'(災後)의 관점으로 본 '마스다 보고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비평, 제16호, 158–183. 전효재, 김윤영, 김유림, 송재일, 이영주(2024), 인구감소시대, 지역관광의 역할과 정책 대응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2024), 100년 뒤를 내다본 작은 마을 가와바의 비밀, 흙사랑물사랑 웹진 2024년 1월호, Vol. 454,(https://www.ekr.or.kr/kkrpub/webzine/2024/01/page9.html),



여러분에게 2024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으로 지방시대 매거진이 운영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유익한 웹진을 만들기 위해 설문조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더 나은 웹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응답을 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기간 2024년 12월 10일(화)~ 2024년 12월 31일(화) (3주 간) 당첨자 발표 2025년 1월 10일(금) ※1월 지방시대 매거진 당첨자 페이지



교촌 반반콤보+ 웨지감자세트

파인바게트 실키롤케익



요아정 입짧은햇님 세트



크리스피크림도넛 오리지널 글레이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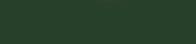


다이소 상품권 1만원권



스타벅스 카페아메리카노





- 1. 설문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네이버 폼 (https://naver.me/Gq8w5cBL)에 접속한다.
 - 2. 설문 내용을 성실하게 응답하면 참여 완료!
 - 3. 당첨자가 발표되는 지방시대 매거진 1월호를 기다린다.

설문 참여하기

당첨 확률을 높이는 꿀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블로그 이웃을 맺고 이웃 인증 시 당첨 확률 UP!



이웃추가

※ 블로그 이웃 인증 시 이웃 이름을 기재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gaoksns

< 이벤트 참여 유의사항 >

※ 1인 1회 참여 가능하며 다중 참여 적발시 안내 없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여 경품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발송이 불가합니다. ※ 경품 품절 시 동일 가격대의 다른 상품으로 안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편집후기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심도 있게 들어보고, 이를 위한 시·도의 주요 정책 및 이슈를 중점적으로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또한, 주요 법률 및 조례 등 입법 사례와 시·군·구의 우수정책을 알리고, 지방시대 정신에 걸맞게 활동하고 있는 인물을 찾아 홍보한다.

정책포커스에서는 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문제의식을 함께하고자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시의성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호는 '광주광역시' 편으로 제작되었다.

「시·도지사의 칼럼」은 강기정 시장님의 지방시대에 대한 견해를 담고, 「2024년 역점과제」로는 「시민에게 '걷고 싶은 길'을 드립니다. 〈대·자·보 도시〉 광주」, 「광주의 전략적 선택〈A·미래차·문화산업〉 도시로」, 「광주 도시이용인구 3천만 시대 개막〈복합쇼핑몰〉」에 대한 정책을 소개한다.

「광주광역시 우수사례」에서는 「소상공인 지원군〈광주공공배달〉」, 「사계절의 다양한 매력을 품은 도심속의 쉼터-무등산국립공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의 주무대-옛 전남도청과 5·18민주광장」,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정월대보름에 만나는 대표 민속축제-광주 칠석 고싸움놀이 축제」의 우수정책을 홍보하고,

「의회 소식」으로는 「제9대 후반기 광주광역시 출범」,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 건의」, 「제9대 후반기 '정책 네트워크' 출범」, 「지방의회 전국경진대회에서 전국 최다 6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를 소개한다.

「글로컬 이노베이터를 찾아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라는 기업의 슬로건을 모토로 자동차, 인프라, 로봇 및 산업안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라이다를 연구, 개발하는 ㈜에스오에스랩 정지성 대표님을 만나보았다.

마지막으로 「정책포커스」는 "지방시대,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역 관광정책 추진 방안"과 "지역혁신기반 대학 지원체계 시행을 위한 전담부서 및 전담조직 운영 방향에 관한 고찰"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지방시대 매거진은 시·도지사와 시·도의 홍보창구 역할을 하기 위해 매월 특정 시·도편으로 제작하여 시·도, 국회, 중앙정부, 국민 등에게 제공된다.

2025년 1월호는 '전북특별자치도' 편으로 제작된다.

기속가능 "기방정부" 실현



Metropolitan and
Provincial Government
Diplomacy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al Administration



Reg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